

블랙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별 디자인 요소 특징

김 설 리 · 오 인 영[†]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Analysis on Image Types and Design Element Qualities of Contemporary Black Make-up

Seol-Lee Kim and In-young O[†]

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2009. 2. 4. 접수일 : 2009. 7. 17. 수정완료일 : 2009. 7. 30. 게재확정일)

Abstract

Black has been the most important color of all since the ancient times when the recognition of black roused, as well as during most of the eras; and can especially be said as the main color which controlled the chronicles of fash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broaden the application of black color image make-up by inquiring into make-up design elemental characteristics of lines and textures, after classifying magazine illustrations and advertisement make-up images using black. The photos which made effective use of black among fashion illustrations, magazine advertisements after 2001 were classified in to each type, and make-up expression method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esign element of each image type was analyzed. The conclusion of such study was the following. 'Erotic image' showed contrast effect between eye make-up and lip color by using pale tone or red color. 'Mannish image' emphasized form and texture of eyebrow by restraining the colors of eyelids with natural brown tone eye make-up; 'Modern image' expressed vague eyebrow to bring the sensation of the direction of eye shadow on eyelids and eye line as well as slant line to relief. 'Kitsch image' showed free and light imagery by creating unique hair style with various colors; expressing lips mostly with colors similar to skin tone or by restraining colors on lips. 'Decadence image' showed messy and foul sensation with unstandardized eye make-up and matt skin of shimmer, glossy and pale tone, also with black colored lips; 'Retro image' expressed reinterpretation of images from 1920~1960 to contemporary styles.

Key words: contemporary black make-up(현대 블랙 메이크업), design element qualities(디자인 특징), image types(이미지 유형).

I. 서 론

현대 사회는 개성화, 다양화의 시대로서 시각적인

요소를 매우 중요시 여기게 되었으며, 이는 감성적 시각 언어인 '색채'로 나타나고 있다. 색채는 각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며 개인의 이미지(image)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미지

[†] 교신저자 E-mail : prof520@hanmail.net

가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색채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시대와 국가, 민족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 다양하지만 여러 색상 중에서도 블랙 컬러는 색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고대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색상이었으며, 특히 다른 어느 색상보다도 패션의 연대기를 지배해 온 주된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¹⁾.

프랑스 기호 학자 Roland Barthes(1967)는 ‘패션에서 블랙 컬러는 완전한 색상이다’²⁾라고 했으며, 의류 학자 Anne Hollander(1988)는 ‘블랙을 착용하는 습관은 다른 어떤 색상의 착용보다 더 강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결 같은 흐름’이라고 함으로써 블랙 컬러는 독특한 힘과 개성을 지닌 색상임을 언급하고 있다³⁾. 또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설자인 헨리 포드가 ‘검정색이면 모든 색을 포함한다’라고 했듯이 산업혁명 이후 블랙 컬러는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인 색상으로 정착하였다⁴⁾. 특히 블랙 컬러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마케팅과 인테리어에서 즐겨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컬러로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채색의 경우, 색채의 고유한 이미지와 색상 연상 작용으로 인해 너무 한정되거나 특정한 이미지 유형으로만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메이크업 분야에서의 블랙 컬러는 컬러 이미지뿐만 아니라, 색을 제외한 선과 질감의 디자인 요소별 메이크업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블랙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블랙 컬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잡지 화보와 광고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선과 형태 및 질감의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별 특징과 기법을 고찰함으로써 블랙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의 상징성을 이해하고 활용도를 넓히고자 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립 등에 블랙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분류하고, 선과 형태 및 질감의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색채학 관련 전문서적, 학위논문, 국내외 학술지, 인터넷 기사 정보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메이크업에 나타난 블랙 컬러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자료의 분석을 위해 패션 전문잡지, ‘VOGUE’ ‘ELLE’와 미용 전문잡지, ‘ESTETICA’, ‘Zink’지 등의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이미지 유형 탐색 및 분류는 메이크업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3인과 관련업계 현장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2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두 차례에 걸친 선별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범위는 2001년 이후 출간된 패션 전문지와 미용 전문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블랙의 색채 특징

블랙 컬러는 흰색과 함께 색채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시대부터 인식되어진 색상으로서⁵⁾, 블랙 컬러는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 중 명도만 가지고 있고, 색상과 채도는 없는 무채색이다. 그러나 블랙 컬러는 다른 어떤 컬러보다도 뚜렷하게 사물의 형태와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색이다⁶⁾.

페디(Peddi)는 ‘블랙 컬러는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빛의 자극이 없는 상태를 뜻하나,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빛의 자극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하나의 적극적인 자극으로 감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⁷⁾. 그러므로 블랙 컬러는 색상이 없는 색채이지만 모든 색을 흡수하는 색이며, 어떤 컬러보다도 빛과의 관계가 복잡하지만 다른 색들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느낌을 주는 성격이 강하고 분명한 컬러라 볼 수 있다.

1) 문혜정, “서양 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말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50.

2) Roland Barthes, *포드의 체계*,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서울: 동문선, 1998), p. 3.

3) 신은진, “블랙 패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1.

4) 광혜선,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88.

5) 박은주, *색채 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1995), p. 52.

6) 신은진, op. cit., p. 1.

7) Faber Birren, *색채심리*, 김화중 역 (서울: 동국출판사, 1989), p. 183.

블랙 컬러의 감정적 효과는 온도감, 운동감, 중량감, 주목성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색의 온도감(temperature of color)’은 색상에 의하여 강하게 느껴지지만 명도에 의해서도 느껴진다. 무채색에 있어서 저명도는 따뜻한 느낌을 주며 고명도는 찬 느낌을 준다. 일반적으로 높은 명도의 백색은 차갑게 느껴지며 블랙 컬러는 따뜻하게 느껴진다⁸⁾.

‘색의 중량감’은 무겁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는 시각의 감각현상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는 명도에 따라 일어난다. 즉, 고명도일수록 가볍게 느껴지며 저명도일수록 무겁게 보인다. 여기서 블랙 컬러는 모든 색중에 가장 명도가 낮은 색채이므로 가장 무거운 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블랙 컬러는 여러 색채 중에서 가장 후퇴하거나 수축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색채로서 다른 색채로 된 동일 면적에 비해 축소되어 보이고, 크기가 같은 밝은 대상보다 작아 보이게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블랙 컬러의 옷은 흰옷을 입었을 때보다 착용자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블랙 컬러의 축소감과 함께 분명한 외각선 효과는 아름다운 여성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⁹⁾.

특히, 블랙 컬러에서의 빛은 소재의 ‘재질감’에 따라 그 힘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빛이 투과하면 그 어떤 유채색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오묘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유채색에서 나타나는 다양함보다 다른 느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 블랙 컬러의 상징성 및 심리적 연상 이미지

블랙 컬러는 색의 대비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만났을 때 미적 효과를 높여주는 색채 조화에서도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무채색과의 조화나 여러 가지 유채색이 함께 쓰일 때 전체적인 느낌을 조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모든 빛과 색을 흡수하는 블랙 컬러는 신비, 정적,

엄숙성의 상징이며, 색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복식사에서 수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블랙 컬러가 지닌 상징적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그리스 신화 중 복수의 여신인 퓨리스(Furies)는 항상 블랙 컬러의 드레스를 입고, 마찬가지로 암흑의 힘을 구사하는 마귀나 요술사들 역시 블랙 컬러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흰색이 순수함을 상징하는 반면 블랙 컬러는 궤변, 즉 어떤 지식이나 경험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인 ‘악이나 불행, 죽음을 상징’한다¹⁰⁾. 또한, 몇몇 대륙의 원시사회에서 검은 안료를 피부에 바르면서 블랙 컬러는 ‘죄악, 죽음, 질병, 그리고 마법, 불행’과 연관지어졌다.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은 죽음의 모습으로 적을 위협하고 커 보이는 효과를 위해 자신들을 검게 만들었다¹¹⁾. 이처럼 옛날부터 블랙 컬러는 일반적으로 ‘허무, 절망, 질병, 죽음, 암흑, 밤, 애도, 슬픔, 엄숙함, 정지, 부정, 파괴, 죄악, 금욕, 수치, 불결, 배반, 저주, 불안, 공포, 불행, 불길함, 음울, 억압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색채로 인식되어 왔다¹²⁾.

중세 이래로 기독교 미술에서 블랙 컬러는 악(evil)과 연관되어 왔기 때문에 ‘사탄의 블랙’이라 불리운다. 그러나 블랙 컬러는 성직자의 금욕적인 복장과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성적 측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블랙 컬러는 ‘금욕적 측면과 음란행위의 가능성’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블랙 컬러의 이러한 이미지와 함께 블랙 컬러의 의상은 권위적이고 고요하며, 단조롭고 음울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아하기도 하고, 이국적인 느낌, 심지어는 공포와 손실이라는 블랙 컬러의 잠재적 성질로 인하여 블랙 컬러의 의상이 에로틱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경우도 있다¹³⁾. 16세기 영국 왕실에서 상중(喪中)에 블랙 컬러의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되어 현재까지 서양에서는 블랙 컬러가 상(喪)을 상징하는 색채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8)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서울: 조형사, 1994), p. 24.

9) 송금옥, “패션색채계획을 위한 감정색의 색채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23.

10) Alison Lurie, *The Language of Clothes*, 유태순 역 (서울: 경춘사, 1986), p. 176.

11) Harvey John, “Men in Black”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96), p. 12.

12) 송명희,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20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17.

13) Alison Lurie, op. cit., p. 179.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애도의 의미를 지녔던 블랙 컬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상에 대한 중요성이 경시되면서 상복(喪服) 또한 이전보다는 그 중요성이 감소되어감에 따라 슬픔보다는 ‘분노, 공격, 반항’을 나타내는 색채가 되었다. 반면 블랙 컬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블랙 컬러가 생명의 뜻을 지닌 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어두움에서 새 날이 밝아오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정서적 반응의 결과였으며, 그래서 블랙 컬러는 생명의 근원인 ‘비옥한 땅’을 의미하기도 했다¹⁴⁾.

현재 미국인의 색채 연상표에 의하면 일반적 느낌으로 어두운 공간, 심적인 현상으로 중립, 방, 공허, 직접적 연상으로 애도, 불길함, 죽음¹⁵⁾ 등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무채색인 블랙 컬러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블랙 컬러는 위엄이나 권위, 힘 등을 나타내고, 단아함과 우아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⁶⁾. 또한, 블랙 컬러는 현대에 이르러 대량 생산되면서 자연의 색조보다는 인공적 창조물들과 더 잘 어울리는 도시 환경의 색상이 되었고, 전 세계가 선호하는 색상이 되었다¹⁷⁾.

III. 메이크업 디자인의 이미지 유형 분류

미용학 관련 선행 연구^{18,19)}에서는 메이크업 디자인 이미지 유형을 색채(color) 이미지, 선과 형태(shape · form)에 따른 이미지, 질감(texture)에 따른 이미지 등의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색에 의한 메이크업 디자인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의 효과와 역할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바꾸어 주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색의 심리 효과와 감정 효과, 시각적 효과에 의해 이미지를 변화시킨다.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분류되는데, 무채색은 명도의 고저에 의해 표현되고, 유채색은 각기 고유의 색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색조(tone)에 의해 다양한 색상과 색감을 발현할 수 있다. 같은 색상이라도 명암, 농담, 강함, 약함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른 색상이 되는데, 색조는 이러한 명도와 채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색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색조를 12가지 범위로 분류해서 vivid, strong, bright, pale, very pale, light grayish, light, grayish, dull, deep, dark, dark grayish²⁰⁾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유사색 조화의 메이크업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톤끼리의 색조화로 이루어진 메이크업으로서, 눈에 띄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안정적이므로 통일감과 편안함을 주는 반면 약간의 지루함을 줄 수도 있다. 어느 한 부분의 부각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2) 대조색(보색) 조화의 메이크업

얼굴의 어느 한 부위와 다른 부위의 색 대비가 있는 메이크업으로서 강렬하고 인공적인 느낌을 주므로 활기 있어 보이는 반면, 자칫 경박하거나 튀어 보일 수 있다.

2. 선과 형태에 의한 메이크업 디자인

메이크업에 있어서 형태의 표현은 직선과 곡선 및 사선으로 분류되며, 형태가 주는 전체적 이미지 이외에도 선의 분할과 위치, 굵기, 길고 짧음에 따라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썹의 굵기와 방향

14)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s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1985), p. 1986.

15) Faber Birren, op. cit., p. 235.

16) 김기례,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63.

17) Elizabeth Wilson, op. cit., p. 1987.

18) 이화순, “한국 여성의 메이크업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13.

19) 장근영, 오인영, 이숙연,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2003) p. 79.

20) 남운환가, *색채표현*, (서울: 조형사, 2000), 오인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유형에 따른 TV뉴스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 19.

〈표 1〉 각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별 이미지 비교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	각 요소별 해당 이미지			
1. 색 (Color)	 〈그림 1〉 유사색 (출처: ELLE, 2004. 9).	 〈그림 2〉 보색 (출처: LANEIGE, 2004. 3).	 〈그림 3〉 온난색 (출처: VOGUE, 2004. 7).	 〈그림 4〉 한색 (출처: OHUI, 2004. 7).
2. 선 · 형태 (Shape · Form)	 〈그림 5〉 각진형 눈썹 (출처: VOGUE, 2008. 9).	 〈그림 6〉 사선형 눈썹 (출처: 메이크업 디자인 어드밴스드, 2009. 3).	 〈그림 7〉 사선형 블러셔 (출처: CLIO, 2007. 11).	 〈그림 8〉 곡선형 블러셔 (출처: 메이크업 디자인 어드밴스드, 2009. 3).
3. 질감 (Texture)	 〈그림 9〉 펄+쉬머 (출처: VOGUE, 2008. 2).	 〈그림 10〉 글로시 (출처: VOGUE, 2003. 6).	 〈그림 11〉 매트 (출처: VOGUE, 2008. 1).	 〈그림 12〉 글리터+쉬머 (출처: ELLE, 2004. 11).

및 길이, 입술 산의 형태가 직선이나 곡선이나에 따라 얼굴의 형태와 이미지가 달라지며, 특히 각 얼굴 형에 따라 비율을 고려하여 메이크업을 할 경우, 색조 화장품의 도포 방향이나 그라데이션(gradation) 방법 및 형태 등에 의해 전체적인 메이크업 이미지가 결정된다.

3. 질감에 의한 메이크업 디자인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 중 질감은 의복 소재의 질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매트(matte: 광이 안 나는, 뿌연)한 핑크색의 립스틱을 바르면 보송보송하고 건

조한 느낌을 주고, 그 위에 립글로스를 덧바르면 훨씬 촉촉하고 생기 있는 느낌을 주며(글로시: 광택이 나는), 약간의 펄(pearl)이 가미된 립스틱을 바르면 입술의 볼륨감이 강조되어 육감적인 입술의 느낌(펄, 쉬머: 진주 빛이 나는)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의 질감을 표현하는 단어와 그에 따른 이미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광택이 없는, 단정하고 정숙한 느낌의 ‘matte’, 둘째, 윤기가 나고 촉촉한, 젊고 싱그러움, 건강하고 활동적, 현대적 신선한 느낌의 ‘glossy’, 셋째, 진주빛 광택과 화려함, 관능적, 요염한 느낌의 ‘shimmer’이다²¹⁾.

IV. 블랙 메이크업 이미지 유형별 디자인 요소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인 색, 선(형태), 질감 중 색 요소는 블랙이라는 컬러만으로 제한한 후 이미지를 분류한 결과 블랙 메이크업은 다음의 관능적, 남성적, 현대적, 유희적, 퇴폐적, 복고적 메이크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관능적 메이크업

‘관능적(erotic) 이미지’는 성적인 매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적인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로서 ‘에로티시즘(eroticism)’과 유사한 개념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은 타인을 향한 자신의 내보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심리적 표현 행위가 갖는 특징 즉, ‘성적인 태도’를 말하며, 성에 대한 갈망이나 열정, 혹은 성에 대한 친화력을 뜻한다. 육체적 사랑, 관능, 파괴, 에로티시즘 등의 이미지를 포함한다²¹⁾.

‘관능적 메이크업’은 여성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와 질감, 형태를 연출하는데²²⁾ 주로 하얗고 완벽한 피부에 짙은 색조로 메이크업을 하며, 예를 들어 립스틱은 주로 붉은색 계열로 글로시하게 연출하거

나 본래 눈의 형태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진하게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다. 입술은 아웃커브로 그려 도톰하게 표현하거나 오히려 입술의 컬러를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눈을 주목시키거나 볼터치로 얼굴의 윤곽을 또렷하게 살려준다. 때로는 광대뼈를 부각시켜 인상을 강하게 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어 섹시함을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²⁴⁾.

〈그림 13〉의 레이스 마스크를 쓴 모델은 마치 ‘갯우먼’을 연상시키며 블랙 컬러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여 눈 두덩이에서 눈 꼬리 방향으로 올려 그려주며, 언더라인 또한 블랙 컬러로 눈 꼬리 방향으로 올려 표현함으로써 대담하고 관능적인 눈매를 나타내고 있다. 립 컬러는 윤곽선이 뚜렷하고 강렬한 검붉은 색상으로 아웃커브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여 성숙하면서도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그림 14〉는 블랙 컬러 아이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가로로 넓고 길게 그라데이션 하여 눈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눈매를 부각시킴으로써 독특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었으며, 피부 표현은 전체적으로 창백하고 매트하게 표현하였고, 얼굴 주위에 모발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은 고풍스러우며 매혹적인 이미지를 배가시키고 있다.



〈그림 13〉 ELLE(2008. 8). 〈그림 14〉 ELLE(2008. 9). 〈그림 15〉 www.zedge.net 〈그림 16〉 VOGUE(2005. 10).

21) 박연희, “메이크업색채와 이미지의 상황적 연출과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오인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 뉴스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15-19.

22) 문혜정, op. cit., p. 57.

23) 오정은,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플라쥬 형태 및 표현 특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55.

24) 박정원, “팝프 파탈 이미지 메이크업: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69-70.

〈그림 15〉의 매트하며 창백한 피부와 입술 표현은 블랙 컬러 아이섀도우로 과감하고 대담하게 눈썹까지 그라데이션 하여 표현한 아이 메이크업을 돋보이게 한다. 눈 앞머리와 언더라인 앞머리에 포인트 컬러로 골드 컬러를 사용하여 화려하고, 고풍적이며 그윽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16〉은 그레이와 블랙 컬러로 아이 홀을 강조하는 스모키 아이섀도우 기법으로 포인트 컬러로 진한 은회색의 펄을 사용하고 블랙 컬러 아이섀도우로 아이 홀 안쪽을 메워 그윽하고 입체감 있게 표현하여 매혹적인 눈매를 연출했다.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 표현은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립 컬러는 펄이 함유된 옅은 핑크를 사용해 아웃커브 기법으로 글로시 하게 표현하여 섹시하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 남성적 메이크업

‘매니쉬(mannish) 이미지’는 ‘남성풍, 남자와 같은 여성’이라는 의미로, 서구적 합리주의와 남성적인 행동력으로 표현되며 남성적인 특징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한 여성이 지니는 감성 이미지이다.

매니쉬의 근원은 여성이 남성의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적 우월감을 감소시키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려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²⁵⁾.

‘매니쉬 메이크업’은 남성의 성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맑고 보송한 느낌의 피부 표현과 색을 제한한

피부 표현이 적합하며 색상 사용에 있어서는 남성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스러운 면을 살리는 색과 반대의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주로 원래의 피부 톤보다 약간 어두운 피부 표현과 짙고 굵은 눈썹 표현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살리며 아이섀도우나 입술 표현은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블러셔(blusher)는 사선 방향으로 날카롭게 표현한다²⁶⁾.

〈그림 17〉의 진하고 거친 눈썹은 강인한 느낌을 주며 눈썹의 곁을 살린 입체감 있는 표현을 함으로써 투박하고 야성미가 느껴지는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남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매트한 피부 표현과 윤곽을 무시한 페일 톤의 입술은 여성스러운 색상과 형태감을 절제함으로써 강인한 눈썹 표현에 시선을 끄는 효과를 만들어내어 더욱 남성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였다.

〈그림 18〉의 페일 톤의 매트한 피부 표현은 평면적인 느낌을 나타내며, 인위적인 느낌의 직사각형 형태의 진한 눈썹은 투박하며 개성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블랙 컬러 아이섀도우를 사용해 사선형으로 그라데이션 하여 투박하고 심플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림 19〉의 눈썹은 콧대의 시작선에서부터 직각 삼각형 형태로 관자놀이 방향으로 두껍고 길며 날카롭게 그림으로써 눈썹의 정형적인 형태를 탈피하여



〈그림 17〉 VOGUE(2005. 11). 〈그림 18〉 ESTETICA(2008. 9). 〈그림 19〉 Zink(2007. 11). 〈그림 20〉 ELLE(2008. 8).

25) 오인영, 조오순, 남윤숙, 박혜원, 박은정, *패션 그리고 뷰티이야기*, (서울: 경춘사, 2005), p. 67.

26) 이미정, “20대 여성의 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과 의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59.

과감하게 표현하였다. 눈썹의 강렬함을 강조하기 위해 피부 표현 이외의 다른 색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20〉의 피부 표현은 밝은 톤의 소프트(soft) 매트한 질감으로 약간 부드럽고 깨끗하게 표현되었으며, 직선형의 진한 눈썹은 행동적이고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입술은 어두운 톤의 레드 컬러로 인상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표현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3. 현대적 메이크업

산업 초기에 블랙 컬러는 장식보다는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렇게 쏟아진 블랙 컬러의 제품은 모던으로 표현되었다²⁷⁾. ‘모던(modern) 이미지’는 ‘현대성=블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의 인상, 도시적이며 시크(chic)한 이미지, 지적이며 차가운 이미지, 치밀하면서 합리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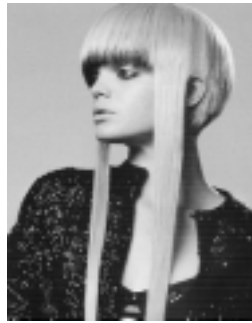
‘모던 메이크업’은 실험주의적이고 검증된 상태가 아니므로 평범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는 전위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아방가르드(avant-garde)적 성향의 메이크업(예: 사이버)이라 말할 수 있고, 광고 사진이나 패션 컬렉션에서의 스테이지 메이크업에서 많이 활용되며²⁸⁾, 일반의 유행을 앞선 독창적이고 기묘한 메이크업, 대중성을 무시하고 실험적 요소가 강

한 메이크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명한 레드의 아이섀도우, 은색의 아이섀도우 등 기존의 아름답다는 개념보다 개인의 자유의지와 개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색채 선택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차가운 계열의 반짝이는 펄 질감이 선호되고 자연스러운 얼굴의 선을 무시한 사각형, 원, 삼각형 등 기하학적인 감각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효과적이다²⁹⁾.

〈그림 21〉은 눈썹 표현을 아이브로우 펜슬로 그리지 않고 오히려 흐릿하게 표현한 후에 펄 입자를 사용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메탈릭(metallic)한 느낌을 줌과 동시에 확장되고 날카롭게 강조된 아이라인의 윤곽을 살려주었다. 아이섀도우는 현대적이고 사이버적인 이미지의 은회색으로 그라데이션하였고, 눈 앞머리와 눈 꼬리에 사선방향의 날렵하고 긴 아이라인과 언더라인을 그려 차가움과 단순미를 한층 더 돋보이게 표현하였다.

입술 컬러는 차분한 분위기의 붉은색으로 깊이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조금 어두운 썬탠(sun tan) 톤의 피부 질감은 매끈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메탈릭 하고 현대적인 아이 메이크업과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

〈그림 22〉는 어두운 톤의 퍼플 기가 감도는 블랙 컬러 아이섀도우를 이용해 언더라인에서 아이라인으로 길게 이어 사선방향으로 연장해 눈썹 길이보다 눈매를 길게 강조하고, 아이섀도우를 눈썹 뼈 방향으



〈그림 21〉 VOGUE 2003, 〈그림 22〉 ELLE(2008. 4). 〈그림 23〉 ESTETICA(2008. 6). 〈그림 24〉 ESTETICA(2008. 6).
슈에무라 F/W Trend.

27) 광혜선, op. cit., p. 45.

28) 강근영, 오인영, 이숙연, op. cit., p. 79.

29) 이미정, op. cit., p. 58.

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여 역동적이고 도회적이며 개성 있는 현대적 감각을 나타냈다. 입술과 피부 표현은 소프트 매트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림 23>은 피부 표현을 페일 톤의 매트한 질감으로 입술의 컬러와 차별화를 두지 않았으며 블랙 컬러 아이라이너로 언더라인을 간결한 느낌으로 단순하게 강조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펄감이 느껴지는 화이트 헤어 컬러와 뒷머리는 매우 짧게 표현한 반면 옆머리는 상대적으로 길게 표현하여 극적인 효과를 주며 앞머리에 부분적으로 블루블랙 컬러로 그라데이션 하듯 끝부분을 강조한 헤어 블리치(bleach) 효과는 단순하고 짙은 직선형태의 앞머리의 모양과 질감을 한층 더 부각시켜 하이테크(high-tech)적이며 아방가르드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림 24>는 내추럴(natural)한 피부 톤과 자연스러운 컬러감으로 입술을 표현하였고, 눈 꼬리 방향으로 언더라인과 이어진 블랙 컬러 아이새도우는 눈 꼬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블러셔의 음영감과 길이가 일반적인 형태보다 길게 사선 방향으로 강조됨으로써 헤어스타일의 앞머리 컷팅(cutting) 방향감과 조화를 이루었다.

사선 방향으로 컷팅 된 앞머리와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금발의 헤어스타일은 역동적이며 간결한 느낌을 나타내고 도회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4. 유희적 메이크업

‘유희적(kitsch) 이미지’는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으로 고전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나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을 말한다.

‘유희적 메이크업’은 주로 콜라주(collage) 기법으로 표현된 메이크업으로서 종이류, 인조 보석류, 패브릭(fabric)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눈썹, 속눈썹, 입술의 형태를 과장하여 극단적으로 묘사하거나 장난스럽고 유아적인 형태의 연출, 또는 유머러스한 기호와 문양을 부착하거나 꽃, 나비, 채소 등의 자연물 형태를 부착함으로써 경직된 실제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유희 충동의 발산으로 해방감과 의외성을 통한 미적 쾌감으로 웃음을 유발한다³⁰⁾.

현대 메이크업에서의 유희성은 어른 세계의 경직되고 긴장된 역할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로서 동심의 세계와 환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해방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며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는 의외성을 찾아 볼 수도 있다³¹⁾.

<그림 25>는 아이새도우의 일반적인 표현기법이 아닌, 블랙 컬러로 눈 주변에 마치 점을 찍어내 듯 불규칙적인 방법으로 눈 화장을 강조함으로써 비현실적이고 실험주의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26>은 눈썹 뼈 방향으로 꼬리를 올린 형태



<그림 25> VOGUE(2001. 11). <그림 26> VOGUE(2008. 5). <그림 27> garywilliamsphotography.wordpress.com <그림 28> ELLE(2008. 7).

30) 오정은, op. cit., p. 50.

31)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권 (1994), p. 75.

로 아이 홀을 확대하여 강조하였으며 눈 앞머리와 눈 꼬리를 언더라인과 연결시켜 과장된 형태로 표현하여 창조적이며 전위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아이 홀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 눈썹의 형태는 생략되었고 입술의 형태감과 질감 및 색상 또한 절제되었다.

〈그림 27〉은 눈썹 표현을 진한 블랙 컬러의 과장되고 둥근 아치 형태로 표현하여 키치적인 느낌을 나타내 시각적 디자인 요소를 무시한 유패함을 느끼게 한다. 아이라인은 아이 홀 선을 따라 두껍고 불규칙적인 라인으로 그림으로써 대담한 느낌을 나타내었으며, 과잉 장식적인 인조 속눈썹은 고정관념을 깨는 의외성을 나타낸다. 피부 표현과 립 컬러는 매트하고 창백한 페일 톤으로 표현하여 왜곡되고 추상적인 아이 메이크업과 조화를 이루며 돋보이게 한다.

〈그림 28〉은 과장되고 확대된 아이라인 표현을 통해 인위적이고 마치 인형의 눈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아래 속눈썹의 경우, 독특한 형태의 인조 속눈썹을 띄엄띄엄 떨어지게 붙임으로써 기존의 정형화된 스타일을 파괴하고 흥미감을 유발시키며 헬멧을 쓴 모델의 포즈는 유머러스하게 연출되어진다.

5. 퇴폐적 메이크업

‘퇴폐적(decadence) 이미지’란 추한 것의 개념에서

확장된 의미로 왜곡의 형태, 그로테스크(grotesque)하거나 혐오스런 표현으로써 나타난다. 이는 성(姓)에 대한 요구를 노골화 시켜 전통미를 해체하고 탐미적 경향과 절대적 세계에 대한 초월적 갈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질서의 파괴와 윤리, 도덕의 타락현상으로 나타난다³²⁾.

‘퇴폐적 메이크업’은 이질적 요소의 결합, 왜곡, 극단, 과장을 통한 일련의 부조화,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웃음과 공포, 재미와 혐오를 동시에 유발하는 양면적인 모순 구조로 이루어진 미(美)의 개념으로서³³⁾ 메이크업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메이크업과는 달리 혐오스럽고 반항적이고 끔찍스럽고 기괴함을 형성하는 이미지 등을 표현하여 반미학적인 추(醜)의 미(美)를 추구하는 또 다른 미적 쾌감을 유발한다³⁴⁾.

강한 골격미를 표현하며 눈물 자국, 악마 같은 문양이나 과감한 색채를 사용하는 펑크(punk) 메이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블랙 컬러 아이샤도우와 붉은 립스틱을 주로 사용하여 괴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한다³⁵⁾.

〈그림 29〉의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쓴 듯 지저분해 보이는 피부 표현에 왼쪽 눈 주위를 블랙 컬러로 둥근 형태로 표현해 음산하고 괴기스러우며 퇴폐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29〉 www.dpchallenge. 〈그림 30〉 VOGUE(2008. 8). 〈그림 31〉 ELLE(2008. 9). 〈그림 32〉 Zink(2008. 5). com

32) 김현미,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48.

33) 장미숙, 양숙희,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3호 (2000), p. 436.

34) 이정아,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17.

35) 강경희, “장폴 고티에의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45.

〈그림 30〉은 눈 화장이 깔끔하게 표현되는 대신 오히려 눈물에 얼룩진 형태로 지저분하게 표현됨으로써 전통미를 해체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피부 톤과 동일한 색상의 입술 컬러는 눈 화장의 특성을 부각시켰다.

〈그림 31〉은 눈썹을 그리지 않고 오히려 모델 본래의 눈썹을 흐릿하게 지움으로써 기존의 메이크업의 구성 방식을 파괴하는 탈구성적인 느낌을 준다. 아이새도우는 언더라인 밑 부분에 블랙 컬러 아이새도우를 그라데이션 시키지 않은 채 투박하고 번진 듯한 느낌으로 넓고 길게 퍼 발라 마치 다크서클과 같은 혐오스런 느낌을 준다. 입술은 매트한 블랙 컬러를 사용하여 퇴폐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며, 창백하고 매트한 피부 표현은 인상을 평면적으로 나타내어 눈 화장과 입술 화장의 퇴폐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32〉는 가늘고 직선형의 눈썹에 불규칙한 형태로 눈 전체를 검게 칠한 아이새도우 형태로 표현하여 기괴한 분위기를 나타내며 특히 날카롭게 그려진 눈썹은 개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며, 피부 톤과 동일한 색상의 입술 컬러는 눈 화장의 특성을 부각시켰다.

6. 복고적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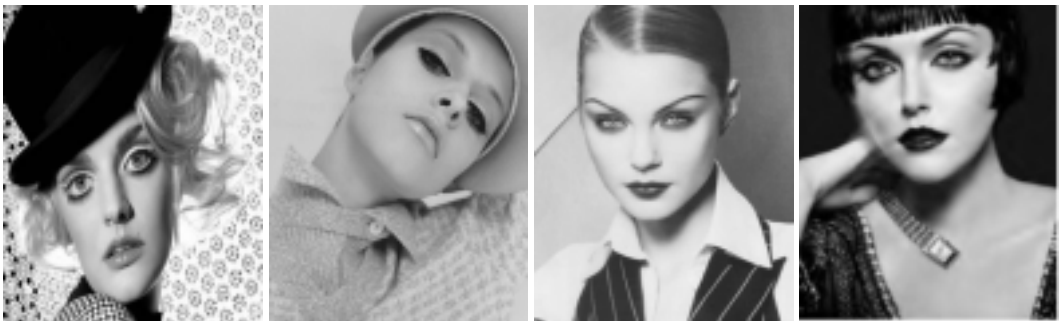
‘복고적(retro) 이미지’란 현재의 삶에 대한 불안전

성과 불확실성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지나간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지금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재수정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패션은 레트로 룩(retro look)³⁶⁾이라 부른다. 메이크업에서의 복고주의는 단순히 과거에 유행한 메이크업 스타일의 재현을 뜻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응용하거나 새롭게 변화시켜 표현한 메이크업도 포함된다³⁷⁾.

‘복고적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20년대의 창백한 얼굴, 검게 강조한 눈, '30년대의 가는 눈썹, 음영을 강조한 아이 홀 메이크업, '50년대의 굵게 강조된 눈썹, '60년대와 '70년대의 아이라인을 강조한 눈과 애교 점, '80년대의 다양한 색상과 강조된 아이새도우, 선명한 붉은 색 입술 등의 복고적인 메이크업을 재현하거나 새롭게 변화시켜 다양하게 표현되며, 과거의 대표적인 특징을 모티브(motive)로 하여 나타낸다³⁸⁾.

〈그림 33〉의 어두운 갈색의 넓은 아치형 눈썹은 강인하면서도 여성스러우며 우아한 느낌이 들게 하며, 개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진한 아이 홀 라인 은 쌍꺼풀을 강조하고 언더라인의 길고 풍성한 인조 속눈썹으로 커다란 눈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은 1960년대 트위기(Twiggy) 메이크업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피부 표현은 옅은 핑크 톤의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하였고, 입술 컬러 또한 피부 톤과 유사한 컬러로



〈그림 33〉 MAC(2006. 7). 〈그림 34〉 ELLE(2004. 10). 〈그림 35〉 ELLE(2008. 3). 〈그림 36〉 ESTETICA(2006. 12).

36) 박윤정, 양숙희,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8권 1호 (2000), p. 87.

37) 김교회,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패션쇼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24.

38) 이승주,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2001~2005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27.

표현함으로써 귀엽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더불어 복고적인 느낌을 듣게 한다.

〈그림 34〉는 밝고 매트한 피부 표현과 자연스러운 눈썹 표현, 아이라인을 눈 앞머리까지 연장해 눈꼬리와 수평으로 강조하여 그렸으며, 입술은 광택감이 있는 페일 핑크 컬러로 도톰하고 섹시하게 표현하여 1960년대의 브리짓 바르도(Brigitte Bardot)의 메이크업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35〉는 1930년대의 헐리웃 여배우 스타일의 하얗고 뽀얀 피부 표현, 아치형의 가는 눈썹 표현, 윤곽이 뚜렷한 붉은 입술 표현을 재해석하였으며, 눈 주위에는 그레이 컬러로 약간의 음영을 준 다음, 사선형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하여 눈썹 뼈 돌출 부위의 윤곽을 강조하였다. 이 메이크업 디자인은 1930년대의 아이새도우 기법을 변형시킨 것으로 차분하고 성숙하며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36〉은 1920년대의 진한 눈매를 강조한 요염한 아이 메이크업과 큐피드(cupid)의 활과 같은 도톰하고 작게 보이는 입술 표현을 재해석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루이스 브룩스(Louis Brooks)의 보이쉬 보보(Boyish Bob)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컬러는 이미지를 만드는 하나의 ‘시각 언어’로서 특히 블랙 컬러는 긍정과 부정, 여성과 남성 등의 이미지가 공존하여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개성적이고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색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 디자인에서 특히, 패션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색이 바로 블랙 컬러이다.

이에 본 연구는 블랙의 색채 특성과 컬러 이미지의 상징성 및 심리적 연상 이미지를 살펴보았으며, 메이크업 디자인의 요소를 기준으로 블랙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이미지 유형별 디자인 요소와 표현 기법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범위와 대상은 2001년 이후의 패션 화보와 잡지 광고에 나타난 사진 중 블랙 컬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진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능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은 주로 페일 톤

또는 자연스러운 스킨 톤에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하였고, 주로 아이라인을 짙게 강조하거나 눈꼬리를 올려 표현하였다. 아이새도우는 매트한 스모키 메이크업 기법으로 눈매를 그윽하게 강조하고, 입술은 형태감을 무시하거나 아웃커브의 선명한 레드 컬러, 글로시한 질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남성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은 눈썹 솥의 입체감을 강조해 그리거나 각진형, 상승형으로 다소 두껍게 그리는 반면 아이라인은 생략하거나 가볍게 표현하였다. 입술은 스킨 톤과 유사한 페일 톤으로 그려 형태감과 볼륨감을 자제하거나 매트하고 윤기 없는 다크 톤의 레드 컬러로 표현하였다. 특히 스킨 톤의 경우 페일 톤의 매트하고 광택없이 표현하기 위한 과도한 파우더의 사용은 매니시적인 눈썹의 형태감과 블랙 컬러를 효과적으로 배가시키는데 이것은 Faber Birren의 ‘색채의 원리’에 나오는 ‘블랙은 흰색과의 대비에서는 더 극적인 명암대비가 나타난다’라고 했던 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셋째, 현대적 이미지는 주로 페일 톤의 매트한 피부 표현이거나 자연스러운 스킨 톤에 약간의 펄 질감으로 표현되었다. 눈썹의 경우, 형태감과 양감은 거의 없이 오히려 아이라인을 눈썹보다 더 길게 연장해 그리고 사선 방향으로 올려 그렸으며 눈 앞머리에도 연장해 그림으로써 사선 방향의 운동감과 역동감을 강조하였다. 이는 모던하고 샤프(sharp)하게 보이며 특히 눈 앞머리의 날렵한 아이라인은 새의 눈매와 같이 날카롭고 차가워 보인다. 헤어스타일 또한 블랙, 화이트 컬러의 차가운 느낌과 뱅 스타일(bang style)의 앞머리, 직선미를 느끼게 하는 비대칭적 컷팅으로 현대적인 세련미를 느끼게 하였다.

넷째, 유희적 이미지는 스킨 톤은 자연스러우나 아이새도우와 아이라인의 정형화된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와 자유로운 표현 기법 등이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인 화장품의 사용이 아닌 인조 보석이나 오브제(objet) 등으로 아이라인과 속눈썹을 표현함으로써 표현 방법이 과장, 변형된 디자인으로 탈정형화되어 있으며 고정관념을 깨는 실험적인 재미거리를 주고 있다.

다섯째, 퇴폐적 이미지는 스킨 톤이 크리미(creamy), 매트함 등으로 나타났고 눈 화장은 지저분하게 번지고 지워지고 뭉쳐진 느낌으로 변형되었으며, 입술 또

한 과도하게 글로시한 질감 표현, 아웃 커브형의 블랙 와인 등으로 표현되었다. 즉, 형태와 질감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복고적 이미지는 1920~1960년대의 대표적인 여배우들의 뷰티 트렌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각 이미지 유형별 세부 디자인 요소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관능적 이미지’는 입술 컬러를 페일 톤이나 레드 컬러를 사용하여 눈 화장의 블랙 컬러와 대비효과를 나타냈으며, ‘남성적 이미지’는 브라운 컬러의 내추럴한 눈 화장으로 눈두덩이의 색감을 절제함으로써 눈썹의 형태와 질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고, ‘현대적 이미지’는 눈두덩이의 블랙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의 방향감과 사선 느낌을 부각시키기 위해 눈썹을 오히려 흐리게 표현하였다.

‘유희적 이미지’는 입술의 컬러감을 절제하거나 대부분 스킨 톤과 동일한 색상의 입술을 표현함으로써 일정한 양식을 탈피한 눈의 변형에 시선을 끌었고, 다양한 컬러와 개성 있는 메이크업의 형태 및 질감 변형으로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퇴폐적 이미지’는 크림미, 페일 톤의 매트한 피부 표현과 비정형화된 눈 화장으로 지저분하고 추한 느낌을 주고 블랙 컬러로 입술을 나타냈으며, ‘복고적 이미지’는 1920~1960년대의 헐리웃 여배우 메이크업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했다.

이와 같이 메이크업 이미지 유형에 따른 디자인 요소별 표현 기법과 특징에 있어서 특히 관능적 메이크업의 경우, 깊고 풍부한 블랙 아이섀도우의 채색이나 명도 차를 달리하는 스모키 아이섀도우 그라데이션 기법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어졌고 남성적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특히 선의 요소인 숄이 많고 진하면서 각을 살린 눈썹이 그 특징을 살려 주었으며, 현대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은 블랙 아이섀도우와 펄 질감의 은회색 아이섀도우를 사선 방향으로 길게 펴 바른 후 눈 앞머리와 눈 꼬리 부분에 젤 아이라이너 또는 아이라이너 펜슬을 활용하여 사선 방향으로 그림으로써 블랙 색상 톤의 차이와 선의 형태, 질감의 특성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차갑고 샤프한 느낌을 잘 살려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희적, 퇴폐적 메이크업은 정형화된 선과 형태의 탈피와 변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눈썹, 눈 화장과 더불어 피부 표현(스킨 톤과 질감)과 입술 표현(컬러와 형태 및 질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패션 화보와 광고 메이크업에 나타난 이미지를 분류함에 있어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 이외에 모델의 헤어스타일, 표정 및 포즈, 악세사리 등의 디테일(detail)한 요소의 영향 또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향후 다른 매체에서의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블랙 컬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블랙 컬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메이크업 이미지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인해 이미지 유형 분류시 한계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대적 메이크업’의 경우를 도회적이고 시크한 이미지 위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 또한 사진을 보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전공자와 실무 경력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형 분류 작업을 하였음에도 하나의 이미지로만 국한지어 보기에는 애매모호하거나 여러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미지를 임의로 유형화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다른 컬러를 중심으로 한 메이크업 이미지의 유형 분류와 디자인 요소별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메이크업 이미지의 상징적 해석의 기회를 넓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메이크업만 한정하여 이미지를 분류하였으나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헤어·악세서리 등 토탈 코디네이션의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이미지 유형을 분류하거나 메이크업과 의복의 이미지 유형 분류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희 (2006). “장폴 고티에의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근영, 오인영, 이숙연 (2003).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 김기례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교회 (2003).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패션

- 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성 (1994). *디자인을 위한 색채*. 서울: 조형사.
- 김현미 (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혜선 (1997).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운활가(南雲活愒) (2000). *색채표현*. 서울: 조형사.
- 문혜정 (1998). “서양 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말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희 (2002). “메이크업색채와 이미지의 상황적 연출과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정, 양숙희 (2000).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1호
- 박은주 (1995). *색채 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 박정원 (2007). “팝프 파탈 이미지 메이크업: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금옥 (2000). “패션색채계획을 위한 검정색의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희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20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진 (2006). “블랙 패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인영 (2006).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 뉴스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인영, 이숙연, 강근영, 류지원 (2009). *메이크업 디자인 어드밴드스*. 서울: 훈민사.
- 오정은 (2006).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플라주 형태 및 표현특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2005). “20대 여성의 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과 의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주 (2005).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2001~2005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 (2002).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순 (1992). “한국 여성의 Make Up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 양숙희 (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3호.
- 조오순, 남윤숙, 박혜원, 오인영, 박은정 (2005). *패션 그리고 뷰티이야기*. 서울: 경춘사.
- 하지수 (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권.
- Lurie, Alison (1986). *The Language of Clothes*. 유태순 역. 서울: 경춘사.
- Wilson, Elizabeth (1985). *Adorned in Dres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 Birren, Faber (1989). *색채심리*. 김화중 역. 서울: 동국출판사.
- John, Harvey (1996). *Men in Black*.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Barthes, Roland (1998). *모드의 체계*.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 연구소 역. 서울: 동문선.